

■ 새 경제팀 정책방향과 과제

한미 FTA·부동산 등 난제 '산적'

경제팀의 진용이 바뀌면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경제팀은 경기 하강 가능성을 차단하고 하반기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원만히 진행해야 한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 양극화 문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해할 일도 산적해 있다.

◇기존 정책 강력한 추진=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참여정부의 초대 정책수석인 권 부총리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를 꿰뚫고 있어 '노무현 이코노믹스'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된다. 변 정책실장 내정자 또한 경제 부총리 후보로도 거

새 정책보다 기존 정책 마무리 역할 양극화 해소·세계개편 등 과제 많아

론될 정도로 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동반성장이란 참여정부의 경제 철학 아래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기존의 경제정책이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완성해야 하는 '마무리 부수' 역할을 해야 할 새 경제팀의 역할을 고려하면 기존 정책의 추진 강도에 탄력을 더할 수도 있다. ◇경기활성화·FTA·부동산 등 난제= 새 경제팀은 참여정부의 경제 현

안을 산뜻하게 마무리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경기는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버블(거품)'이 경고됐던 부동산시장도 연착륙시켜야 한다. 실물지표가 수치는 양호한데 아직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선행지수와 소비자·기업의 심리 등 체감경기는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히 일자리가 생겨야 소득 상승→소비 증가→생산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 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지난 1~5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31만7천명으로 정부의 목표치인 35만~40만명에 못미쳤다. 여기에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는 글로벌 금리 인상과,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환율 등 대외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한미 FTA는 공청회 개최마저 쉽지 않을 정도로 시민단체와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이해조정과 합의 도출이 힘겨운 상태에서 다음주부터 서울에서 미국과 2차 본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부동산시장도 가격의 급등은 물론 급락도 막아야 하고 부동산 세금 조정은 부동산 안정 의지 후퇴와 서민·중산층 세부담 급증이라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양극화·저출산·세계개편 추진도 과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세계개편, 각종 연금개혁 등도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중장기 과제다. 이들 과제 중 대부분이 경기나 한미 FTA처럼 단기간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거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 내에 실

질적인 추진 방향이나 대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양극화는 구조적인 문제지만 동반성장을 추진했던 참여정부로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 난감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지난 달 윤곽을 드러냈지만 아직 세부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책 일관성, 리더십 회복 관건= 새 경제팀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당·정 또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한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특히 외환은행 월급 매각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재경부의 경우 위촉된 분위기를 살리고 경제정책의 리더십 회복이라는 조직 자체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취임이후 업무수행에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각 부처의 이해가 걸린 정책 조정이나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녔다는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새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이 얼마나 의공을 차단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성공적 마무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광주신세계 이마트 개점

화정동 '복합 쇼핑몰 시대' 열려

광주신세계 이마트가 4일 백화점 옆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지에서 개점을 갖고 공식 영업에 들어간다. 이마트 광주점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광주지역 법인인 (주)광주신세계가 투자하고 이마트가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국 최초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한곳에서 영업하는 복합 쇼핑몰 시대 열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로 부지면적 5천8평에 매장면적만 5천276평으로 광주지역 대형마트중 최대 규모다. 지하 1층은 테넌트(고객 편의시설)매장, 지상 1~2층은 신선·가공·가전매장이며 지하 2~3층과 지상 3~5층은 1천421대의 동시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으로 배치했다. 특히 백화점과 이마트의 지하 1층에는 길이 122m, 너비 6m의 생방함 무빙워크를 설치, 고객들이 손쉽게 백화점과 이마트를 오가며 패션과 식품, 생활용품 한곳에서 살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하 1층에 2천평 규모의 영 패션 전문관인 '패션 스트리트'를 마련하고 나이키·아디다스 등 49개의 패션 브랜드를 입점시켜 10대와 20대를 위한 패션 명소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스포츠·어린이·생활용품 등 분야별 전문매장을 강화하고, 생필품 등 가격지향형 상품은 철저히 최저가를 유지하며 비가격 경쟁상품은 프리미엄급 상품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고급화를 추구한 점이 특징이다. 광주신세계 전우만 대표이사는 "업체간 잠정인 백화점의 패션과 마트의 가격지향성을 철저히 추구함으로써 시너지를 높여 고객이 쇼핑의 재미를 2배로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u@kwangju.co.kr

소비자물가 '안정세'

6월 동향... 상승률 2%대 유지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6월보다 2.6% 상승했고 전월에 비해서는 0.2% 하락했다. 물가가 지난 6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지난해 동기 대비)은 2.4%로 나타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목표치(3%) 내에서 유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기준으로 2000년 1.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석유류는 지난해 6월보다 10.4% 올랐고 공공서비스 요금도 지난해 6월에 비해 4.0% 오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채소류와 과일류 등의 출회증가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내리고 석유류, 금반지, 컴퓨터 본체 등 공업제품 가격도 떨어져 전체 소비자물가가 전월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당근(20.0%), 돼지고기(12.0%), 자동차 종합보험료(3.3%), 자동차용 LPG(3.2%) 등이 전월보다 가격이 올랐다. 반면 배추(-25.8%), 감자(-22.8%), 컴퓨터 본체(-12.3%), 금반지(-12.5%) 등은 전월에 비해 내림세를 보였다. 광주·전남지역은 6월중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6월보다 각각 2.6%, 2.3% 상승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광주는 채소류, 과일류 등의 출회증가로 전월보다 0.1% 하락했으며, 전남은 채소류, 교양·오락 기타잡화 등이 내려 전월보다 0.3% 하락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올 해외 건설 수주액 150억달러 돌파 기대

상반기 해외건설수주액이 85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올해 수주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5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3월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6월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 실적은 156억 84억8천800만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세종대 건설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은 "하반기에는 중동지역에서 37억달러, 아시아에서 25억달러 등 모두 70억달러 정도의 수주가 예상돼 해외건설 진출이후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주액이 150억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150억달러 수주목표는 연초 정부가 밝힌 목표액(130억달러)보다 20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건설 최고 수주액은 97년 140억달러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도공 호남본부 채용설명회

4일 전남대·5일 조선대서 열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2006년 신입사원 공채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용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 학교 출신 직원들이 참석할 가운데 전남대(4일)와 조선대(5일)에서 차례로 열리며, 도로공사의 일련번호 및 미래비전을 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영상매체를 통해 소개하게 된다. 도로공사는 올해 사무직 20명, 기술직 60명 등 일반경력 80명과 공인회계사·노무사 등 제경력 10명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괜찮은 일자리' 16만개 줄었다

삼성경제연, 2005년 14만개

삼성경제연구소는 양질의 일자리 수가 부족해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체감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3일 '세리 CEO' 사이트에 게재한 '괜찮은 일자리 감소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새로 창출된 '괜찮은 일자리' 수는 총 14만개로 2004년의 30만개에 비해 절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손 연구원은 올해 1~4분기 '취업준비 비경제 활동인구'가 약 49만명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3년 1~4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른 것도 '괜찮은 일자리' 감소 현상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는 취업 준비생이 그만큼 크게 늘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 연구원은 지난 5월 실업률이 3.2%

▲'괜찮은 일자리' = 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따라 전체 산업의 명목 월평균 임금수준을 웃도는 산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주로 금융·보험·IT서비스 등의 일자리가 이에 해당된다.

에 머물고 취업자 수 역시 작년동월보다 28만명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동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가 귀해지는 추세를 방치할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고용경기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외선 차단 선풍제 신제품

본격적인 여름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3일 삼성테크노 홀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다양한 자외선 차단 선풍제 신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농수산물 무역적자 확대

올 5월까지 적자액 50억4,070만달러 '사상 최대'

농수산물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올해 들어서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3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5월 농수산물 수출은 12억7천39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7% 감소한 반면, 수입은 63억1천460만달러로 7.2% 증가해 농수산물 무역적자액이 50억4천70만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농수산물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1~5월의 45억7천970만달러보다 10.1% 늘어난 것이다.

농수산물 무역 적자규모는 1987년 연간 4억달러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때를 빼고는 꾸준히 늘어 2004년 101억2천만달러로 처음 100억달러대를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도 108억6천만달러에 달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이유는 농산물시장 개방확대에 따라 칠레산 포도 등 수입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수산물과 임산물의 수출 감소폭이 두자릿수로 더욱 커지고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증가

세도 둔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우리 농수산물의 최대시장인 일본이 잔류농약관리제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강화하고 기생충과동 여파와 잔류농약 문제로 대일 주력 수출품목인 김치와 파프리카마저 수출이 급감,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실제 올해 1~5월 대일 김치수출은 43.9%나 줄었으며 채소 수출도 23.7%가 감소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및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스텝스* | SK텔레콤 미남 고령 상담원 | 고졸/경력무관 | 1,600~1,800 | 07/04 | 062-350-6051 |
| 한빛미디어 | 사무관리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7/05 | 062-262-3611 |
| 선도유통 | QC/식자재관리/운전자능력사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7/08 | 062-954-3911 |
| 아시아에드 | 특목 투는 AE, 디자이너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7/08 | 062-602-2322 |
| 화인테크 | 영업, 영업관리 | 고졸/경력무관 | 1,600~1,800 | 07/06 | 062-521-4567 |
| 서울컴사* | 정규직 비파괴검사 사원 | 고졸/경력무관 | 1,400~1,600 | 07/10 | 062-369-0790 |
| 한진기공 | 기계설계직/생산관리직/co2용접기사/cnc밀링기사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7/10 | 062-953-1642 |
| 대한전자통신* | 전산입력(엑셀, 파워포인트) 능력사 및 회계업무 | 고졸/경력1년 | 1,200~1,400 | 07/10 | 062-383-2600 |
| 에이아트하우징 | 인테리어매장관리 및 사무보조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7/12 | 062-654-7412 |
|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 전시기획 또는 설치 | 대졸/경력무관 | 1,800~2,000 | 07/12 | 062-608-4222 |
| 대신건설 이연씨 | 건축사원 - 건축 안전진단 | 초대졸/경력1년 | 회사내규 | 07/12 | 062-374-2008 |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아파트 대출 환영

월 0.58% (년 7%)

시중은행대출과 같습니다.

정기예금 年 5.32%

무등저축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송정동 412-1 (11월 24일 개업)

T. (062) 223-5506